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소식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발행인 : 박찬일/편집인 : 서창욱/서울시 용산구 이촌 1동 302-75/전화 02)798-3807/전송 02)794-3148 www.kamje.or.kr



회원 현황 및 회원 가입 안내

본 협회의 단체회원은 지난 9월 이후 대한골대사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가 신규로 가입하여 2005년 12월 현재 148종 (JKMS 및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학술지 115, 의과대학 학술지 11, 기타 학회 학술지 22)이며, 개인회원이 29명입니다.

특별회원으로는 광문출판사, 아카데미, 엠투커뮤니티, 의

학문회사, 중앙문화사, 진기획, 최신의학사, Proquest 한국지사 등 총 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사무국(Tel: 798-3807, Fax: 794-31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고 한국학술진흥재단 KCI(Korea Citation Index)의 문제점

대한의학회는 우리나라 의학 관련 학술지(이하 의학학술지)와 게재 논문의 가치를 평가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의학 학술지 인용색인(Korean Medical Citation Index, 이하 KoMCI) 정보 개발사업단'을 구성하고, 2000년부터 의학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실제 인용빈도와 학술지 영향력지표(Impact factor, 이하 IF)를 미국 Thomson ISI사 SCI의 IF와 같은 형식의 객관적 지표로 산출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의학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국내 의학학술지를 인용하는 빈도는 약 2편이고 IF는 약 0.2입니다. 이러한 KoMCI 정보는 국내 의학학술지 정보가 어느 정도 유통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Thomson ISI사가 제공하는 인용색인정보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단위의 과학 논문 인용색인정보입니다. 한편,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도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끝에 올해 KCI(Korea Citation Index)를 개발하여 국내 모든 학문분야 학술지 대상의 인용색인정보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KoreaMed 등재 의학학술지 105종을 대상으로 한 KoMCI의 IF와 모든 학문분야 학술지 중 학진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1,000여 종을 대상으로 한 KCI의 IF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정보관리위원회는 KoMCI와 KCI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산출한 IF 값과 자기학술지인용을 제외한 영향력지표(ZIF) 값에 관한 기술통계처리와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차이를 확인하고, 그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께 안내하려고 합니다. 먼저 KoreaMed 등재학술지 중 KoMCI 2004(대한의학회, 2005)와 KCI(한국학술진흥재단, 2005)의 IF 값이 모두 나와 있는 학술지(72종)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KCI의 IF 값이 오류로 나오는 13종을 제외한 59종의 학술지가 대상이었음을 밝혀둡니다.

첫째, KoMCI의 IF 값이 KCI의 IF 값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즉, KoMCI IF의 평균은 0.2, KCI IF의 평균은 0.03이고, KCI IF 값은 KoMCI IF 값의 18%에 불과합니다. KoMCI의 대상 학술지는 KoreaMed 등재 학술지 105종이고, KCI는 학진 등재 학술지 1,000여 종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더 많은 학술지로부터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KCI의 IF 값이 마땅히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KoMCI 대상 학술지 105종 중 72종만 KCI 대상 학술지에 해당하였으므로 69%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한 셈임을 감안하더라도 KCI의 IF 값이 KoMCI 값의 18%에 불과한 것은 분명히 낮은 수치입니다. 자기학술지인용을 제외한 ZIF도

KoMCI는 평균 0.06, KCI는 평균 0.01로서 KCI ZIF 값은 KoMCI ZIF 값의 23.5%입니다.

둘째, 자체인용에 의한 영향력지표를 비교해도 KCI는 평균 0.02(표준편차 0.4)로서 KoMCI 0.139(표준편차 0.08)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p=0.00000$). 이것은 KCI의 데이터베이스가 참고문헌 입력에서 85%의 자료를 손실하면서 입력한다는 의미로서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전거통제(authority control) 개념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KoMCI 2004(대한의학회 2005)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학술지가 최대 29개의 학술지명으로 인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전거통제 없이(하나의 고유명칭으로 통일하지 않고) 참고문헌에 기록된 학술지명을 그대로 입력할 경우 정확한 영향력지표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인용이 자체 학술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내 의학학술지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Thomson ISI사는 정확한 SCI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만큼 전거통제는 중요합니다.

셋째, KoMCI와 KCI의 IF 사이의 상관관계지수와 ZIF 사이의 상관관계지수는 각각 $r=0.4872(p=0.0001)$ 와 $r=0.3447(p=0.0075)$ 로 양(陽)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계수가 낮은 것으로 보아 두 자료 사이에는 호환성도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술연구업적의 객관적 평가 기준의 척도가 될 KCI(국내학술지인용색인 Korea Citation Index)가 국내 최초로 재단에서 완성되었다. 국내학술지인용색인이 완성됨에 따라 학술연구업적의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된 것은 물론 국내 학술지 및 게재 논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학진의 2005년도 소식지 보도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몇 가지 점에서 사실과 다릅니다. 첫째, 이미 2001년부터 대한의협회가 의학학술지의 IF를 계산하여 왔으므로, 전체 학문분야로 보면 국내 최초이지만 의학 분야로 보면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둘째, 위 분석결과와 같이 KCI 데이터베이스와 그것에서 산출된 IF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연구업적의 객관적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학진의 KCI를 분석한 결과 KoMCI야말로 국내 최초로 구축한 정확하고 유용한 국제적 수준의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이고, 그 토대가 되는 KoreaMed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국내외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의학 관련 학술정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허 선(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정보관리위원장)-



PubMed(Medline) 등재 단체회원 학술지 소식

의편협 회원 단체 발행 학술지 중에서 PubMed에 등재된 단체회원 학술지는 지난 11월에 J Prev Med Pub Health가 새로 등재되면서 모두 13종으로 늘어났다(Exp Mol Med, J Korean Med Sci, J Vet Sci, Korean J Gastroenterol, Korean J Hepatol, Korean J Internal Med, Korean J Ophthalmol, Korean J Parasitol, Korean J Radiol, Taehan Kanho Hakhoechi(간호학회지), Uisahak (의사학), Yonsei Med J).

이 중 PubMed LinkOut 서비스에 참여해 원문을 제공하는 학술지는 8종이다. LinkOut 서비스란 www.pubmed.org에서 초록을 검색하고 바로 해당 학술지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전문을(full text) 볼 수 있도록 연결시켜준 것을 말한다.

PubMed 등재 학술지명	발행처	PubMed LinkOut
Exp Mol Med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Yes
J Korean Med Sci	대한의학회	Yes
J Prev Med Pub Health	대한예방의학회	
J Vet Sci	대한수의학회	Yes
Korean J Gastroenterol	대한소화기학회	Yes
Korean J Hepatol	대한간학회	Yes
Korean J Intern Med	대한내과학회	
Korean J Ophthalmol	대한안과학회	
Korean J Parasitol	대한기생충학회	Yes
Korean J Radiol	대한영상의학회	Yes
Taehan Kanho Hakhoechi(간호학회지)	대한간호학회	
Uisahak (의사학)	대한의사학회	
Yonsei Med J	연세의대	Yes



KoreaMed Retro 참여 안내

의편협의 KoreaMed에서는 KoreaMed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KoreaMed Retro(Retrospective)라는 이름으로 1997년 이전에 발표된 논문의 초록을 입력하고 검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ubMed에 등재되지 않은 국내 학술지의 과거자료도 전세계에 모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회원단체에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록범위는 창간호부터 가능하며, 일부 자료를 보내주어도 무방합니다. KoreaMed Retro에 자료를 올리기 원하는 회원 학회는 KoreaMed XML 형식에 맞추어 XML 파일을 만들어 의편협으로 보내야 합니다. KoreaMed XML 파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편협의 KoreaMed 담당자(tel. 798-380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실시

2005년 10월 14일(금)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제2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지 재평가회에는 1998년에 KoreaMed에 등재된 학술지 중 대한내과학회지를 포함한 8종의 학술지가 평가받았다. 심사는 새로 개정된 4차 개정판을 적용하여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98년도에 실시한 평가회에서는 평균 2.9의 평점을 기록하였으나 이번에 실시한 재평가회에서는 평균 3.5를 획득하여 편집상태를 비롯한 학술지의 전체적인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점수와 심사평은 아래와 같다.



제2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 심사평

1. 대한내과학회지

대한내과학회에서 1949년부터 발간한 공식 학술지로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된다. 이번에 평가한 2005년도 9월호에는 시론 1편, 논평 1편, 증설 1편, 원저 6편, 증례 5편, 임상화보 1편, 의학강좌 1편 등이 게재되었다. 투고규정은 잘 정비되어 있었으나, 사소한 띄어쓰기 오류와 오자가 보였고 대한내과학회지의 공식 영문명칭과 약칭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투고규정에서 국내문헌의 우선 인용 관련내용은 논문작성 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도 보았다. 목차의 영문 제목에 오자가 있었고, 초록과 본문에서 체제가 일정하지 않은 논문이 있었고, 참고문헌 표기에 일부 오류와 통일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다. 표에서 약어기체를 요하는 논문이 있었으며, 각주 나열 방식의 통일이 필요하였다. 정보의 전달력이 떨어져 사진의 질 향상을 요하는 증례가 있었고 그림의 설명 체계의 통일도 필요하였다. 인쇄상태와 제본이 불량한 부분이 보였으며 국문으로 작성된 그림이 있었으며 임상화보의

설명 단어에 오류가 보였다. 환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도 있었고 협의회 조사항목에서도 낮은 점수를 보여 이에 대한 보완이 요망되었다. 향후 일본문헌의 인용양식, 시론 등 특별한 논문의 투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2. 대한대장항문학회지

대한대장항문학회에서 1985년부터 발간한 공식 학술지로 격월간으로 정기적으로 발간된다. 이번에 평가한 2005년도 8월호에는 9편의 원저, 1편의 증례, 1편의 증설이 게재되었다. 투고규정은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오자도 발견할 수 없었다. 영문 투고 규정도 있어 좋은 점으로 평가하였다. 단, 제목 작성요령에 대한 보완을 권고하였다. 그림 설명의 시제통일이 필요하였고, 참고문헌에는 사소한 오류들이 지적되었다. 논문제목의 저자 소속 표기법의 통일이 필요하였으며 영문 초록 중에 문단으로 구분된 논문이 있었다. 증설의 경우 여러개

의 그림 설명을 세분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였고 기생충명의 표기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국문으로 기술된 표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잘 정비된 학술지로 평가하였다

3.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대한방사선종양학회에서 1983년부터 발간한 공식 학술지로 연 4회 발행된다. 이번에 평가한 2005년도 6월호에는 1편의 총설, 7편의 임상논문, 1편의 생물 분야, 1편의 물리 분야 논문이 게재되었다. 투고규정은 잘 정비되었으나 오자가 발견되었다. 영문제목의 단어 오류가 지적되었고 투고규정과는 달리 국문으로 표기된 표들이 있었다. 저자 소속 표기법의 통일이 필요하였고 표의 각주 표기법의 통일도 필요하였다. 참고문헌 표기법 중에서 부록에 대한 표기법 지정이 필요하였고 사소한 오류가 지적되었다. 결론이 지나치게 긴 논문이 있어 지적하였으며, 영문으로 게재된 논문이 있었는데 향후 영문투고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의 질은 매우 좋았다.

4. 대한성형외과학회지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1974년부터 발간한 공식 학술지로 현재 연 6회 발행하며 이번 평가는 2005년 9월호를 대상으로 하였다. 충실한 상호심의를 하고, 배척율도 높으며, 발간기일을 정확히 지켜 일정 수준의 질을 잘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고안”(idea innovation)과 같은 입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실는 것은 독자의 요구를 잘 반영한 방법이다. 앞으로 영문투고 규정을 잘 정비하여 영문으로도 논문투고를 받고,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관한 사항을 투고규정에 추가하고, 표에서 가르키는 특수문자 표시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초록의 단락 여부를 통일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직, 국제 색인 초록에 등재가 없으므로 메드라인, SCI, EMBASE, BIOSIS, Chemical Abstract 등을 관장하는 기관에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보내어 평가를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참고 문헌의 내용 오류가 12.2%로 매우 높은 비율이므로 학회의 copy editor를 잘 훈련시켜 오류를 확인하고 체제를 정비한다면 더욱 높은 수준의 학술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5. 대한신장학회지

대한신장학회에서 1982년도부터 발간한 공식 학술지로 지금은 연 6회 발행하며 이번 평가는 2005년 7월호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초분야 논문과 임상분야 논문을 구분하여 실으며 그 호의 우수한 논문에 대한 고찰을 논문으로 실는 독특한 구조로 우수한 논문을 발굴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또한 Chemical Abstract에 등재되어 국제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3년간 SCI 학술지에서 11번을 인용하여 국제적으로 인용될만한 높은 수준의 논문이 실린다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엿보인다. 정형초록(structured abstract)을 사용하는 데, 소제목의 일관성 부족으로 목적이 방법에 실리는 등의 현상이 있으므로 이 정형초록의 소제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문 중 어법에 맞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부호 등이 있는 등, 조금 더 꼼꼼한 상호심이나 편집위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학회 차원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체제를 잘 갖추어 나가면 더욱 훌륭한 학술지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의 내용 오류는 4.9%이므로 copy editor를 훈련시켜 논문심의 과정에 참고 문헌을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영문초록의 위치가 참고 문헌 앞에 있으나 참고 문헌 뒤로 가는 것을 권장한다.

6.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두경부외과학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1958년부터 발간한 공식 학술지로 지금은 매월 발행하는 역사가 오래된 학술지이다. 평가는 2005년 9월호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정 분야의 최신 지견 소개를 위한 “정보”라는 투고 형식을 두고 “자율평가문제”, “퀴즈”를 도입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뛰어난 편집과 높은 수준의 사진 및 표로 일류 학술지로 키워 나가려는 편집위원회의 노력이 돋보인다. 잡지의 발간 기일을 잘 지키는 데도, 의편집 사무실에 학술지가 늦게 도착하는 것은 발송목록에 의편협을 넣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대한 내용을 투고 규정에 추가하고, 영문초록에서 소제목을 투고규정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영문으로 참고 문헌을 쓰므로 참고문헌에서 자체 학술지를 인용할 때, 영문명의 일관성이 없는 점은 학술지의 영문명이 바뀐 뒤에 일어난 혼란이므로 투고 규정 각 논문의 첫페이지 서지사항 부분, 그리고 참고문헌에서 학술지 영문명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내용 오류 비율이 4.1%이므로 copy editor의 점검 작업이 필요하다. 앞으로 국제 색인기관의 초록이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소개되는 학술지로 키워 나가기를 기대한다.

7. 대한초음파의학회지

대한초음파의학회에서 1982년부터 발간한 공식 학술지로 연 4회 발행한다. 이번 평가는 2005년 6월호를 대상으로 하였다. 투고규정에 학술지의 기본적인 사항, 투고원고작성에 관한 사항, 원고 작성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이 잘 정비되어 있었고 학술지의 판권과 연락처에 관한 별쪽 안내의 내용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본문에서 오자는 미미하게 발견되었으나 영문초록이 투고규정을 위반한 논문이 있었고 참고문헌에서 단행본을 기재하는 방법이 투고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많은 사진들이 게재되어 있었으며 대부분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으나 몇몇 사진의 경우 사진의 크기와 배치도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종설의 경우 영문초록이 없었는데 향후 투고규정에 명시하여 종설에도 영문초록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8.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1963년부터 발간한 공식 학술지로 매월 발행한다. 이번 평가는 2005년 8월호를 대상으로 하였다. 투고규정이 투고원고 작성에 관한 사항들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나 원고작성 및 심사에 관한 사항과 논문 제출 자격, 학술지 공식영문명칭과 약칭에 대한 사항이 생략되어 있어서 보다 세밀한 투고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영문초록의 저자이름과 소속을 표기하는 방법 및 본문 작성 체제가 다른 논문들이 발견되었고, 영문초록 내 결과에 번호를 붙여 기술한 논문이 발견되어 논문 체제 심사에 보다 세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증례보고와 원저의 경우 영문초록 작성 방법이 다르나 투고규정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참고문헌의 경우 활자체가 다른 논문들이 발견되었으며, 참고문헌이 단행본인 경우 표기하는 방법이 투고규정에 위반되는 논문들이 발견되었다. 표의 경우 약자 표시가 다른 논문들이 발견되었고, 사진의 선명도, 설명 및 배치도,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화살표 표시가 생략된 사진 등이 발견되어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마지막 교정을 보는 저자들과 편집인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2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평점

■시 간 : 2005년 10월 14일 오후 4시

■장 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의실

항목	세부항목	대한 내과학회지	대한대장항문학회지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대한성형외과학회지	대한신장학회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대한초음파의학회지	Tuberc Respir Dis
자 체 평 가	1-1	3	2	5	2	2	2	3	2
	1-2	4	5	4	4	4	4	5	4
	1-3	5	5	4.5	4	2	4	3	4
	1-4	5	5	5	5	5	5	5	5
	1-5	5	5	3	5	4	5	5	5
	1-6	5	5	3.5	5	5	5	5	5
	1-7	4	3	2.5	4	3	5	4	3
	1-8	5	5	4	5	3	5	5	2
	1-9	5	5	5	5	5	5	5	5
	1-10	6	5	5	2	5	3	6	3
	1-11	5	3	2	2	4	2	2	5
	1-12	3	3	2	3	1	2	1	2
	소계	54.50	51	46	46	43	47	49	45
실 물 평 가	2-1	3.67	3.67	3	5	5	5	2.67	3.67
	2-2	2.67	4	2	4	2	5	2	2.33
	2-3	4	4.67	5	5	3	4.33	6	3.67
	2-4	5	5	4.67	5	3	4	5	4.17
	2-5	4	3.67	5	4.67	4	5	6.67	2.67
	2-6	1.67	4	2.33	5	3.33	4.33	4	1.67
	2-7	2	3	3	4.33	2.33	2	3	1
	2-8	1.67	5	1	3.67	1.33	5	3.67	0
	2-9	1.67	4.33	5	5.67	2	2.67	2.67	2.67
	2-10	3	4.33	4	3	3	4	4	2.67
	2-11	3.17	4.33	4.33	4	3.33	5	3.17	1.33
	2-12	4	5	5	5	5	3.67	-	2
	2-13	4.33	5	4.67	5	4	4	4.67	4.67
소계	40.83	56	49	59.33	41.33	54	47.50	32.50	
협 의 회 조 사 항 목	3-1	0	1	5	5	5	4	5	2
	3-2	1	2	2	4	2	4	1	2
	3-3	0	0	0	0	1	0	0	1
	3-4	1	1	1	1	1	1	1	1
	3-5	3	3	3	0	3	3	3	4
	3-6	3	3	5	2	3	3	5	3
	3-7	2	2	2	2	2	2	1	2
	3-8	5	5	5	5	5	5	5	5
	소계	15	17	23	19	22	22	21	20
통합평점		3.34	3.76	3.56	3.77	3.22	3.73	3.67	2.95

© 세부항목내용은 www.kamje.or.kr 「국내 의학학술지 평가기준」에서 불수 있다

© 위의 평점은 새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평점임.